

#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해야”

### 군산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결의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규)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별로 2019년도 첫 업무 보고로 계획된 사업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간담회를 통해 2019년 군산시간여행 축제에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중순제 조기업 핵심인력 지원사업,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추진, 군

산 하수처리장 BY-PASS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검토와 관련부서의 대책 및 개선방안 등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1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예산 해결 촉구’ 건의문과 ‘5.18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및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문 채택했다. 우종삼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예산 해결 촉구 건의문’을 채

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우 의원은 “올해 정부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전국의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운영 불가’라는 처참한 예산사태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및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대표에 송부했다.

정지숙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게 대한 제명 조치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망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떡방이와 친구들’ 토이 어워드 특별상

###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3D 애니메이션 출시 눈앞

군산캐릭터 ‘떡방이와 친구들’이 지난 20일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한국원구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에서 후원하는 제5회 ‘대한민국 토이어워드’에서 지역캐릭터 부문 우수상인 ‘특별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토이어워드는 우수 국내 완구 발굴로 완구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된 국내 최초의 완구 시상식이다.

떡방이와 친구들은 군산근대이 야기를 재미있게 스토리텔링화해 완성도 높은 캐릭터 상품을 출시해 지역캐릭터로는 유일하게 시

상 무대에 섰다.

2016년 10월 출범한 떡방이와 친구들은 군산의 맛을 담은 ‘떡방이 체조’와 군산주요관광지를 소개한 ‘군산으로 가요’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보급했으며 근대투어 순환버스 시범사업을 실시해 군산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한 2017년 지역특화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돼 군산의 과거와 미래를 재미있게 엮은 떡방이와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3D 애니메이션을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해야”

### 우종삼 군산시의원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이 임시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국비예산 해결을 촉구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우 의원은 “올해 정부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전국의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운영 불가’라는 처참한 예산사태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 확보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올해 시

간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로 급격히 인상되었으나 2019년 지역

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은 2018년의 516만원 대비 2.5%인 수준인 센터당 529만원 증가에 그쳤다”며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하면 종사자의 직급과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는 고사하고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존의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기본운영비의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지침을 내렸다”며 “정부는 아이들에게 써야 할 프로그램비를 줄여 종사자들 최저임금을 메우려고 하는 것과 같은 뿐만 아니라 아동들

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이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있어 정부지원방식을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분리해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지급으로 책임감과 전문성을 확보해 아동들이 보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의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에 송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군산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160개 사업장을 선정하고 통합지도점검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점검은 먼지발생이 심한 분철, 하절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점검을 확대하고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사항 등을 고려해 점검횟수를 조정하고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 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청, 민간환경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점검결과 환경 오염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은 즉시 계도하

고, 중대하고 고질적인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177개 사업장을 점검해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방치시설 부적정 운영, 폐수 무단방류 등을 위반한 23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선관위 공명선거

### 실천 홍보활동 전개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매주 1일, 6일에 열리는 5일장인 대야장날 대야전통시장 찾아 ‘아름다운 선거 특색한 우리조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 리플릿 및 홍보용품 배부하며 선거 당일 소중한 권리인 투표참여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 없는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준법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선거관련 금품수수에 있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니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금마 고도지구 간판 정비 통해 도로환경 개선

익산시는 금마 고도지구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고도지구인 금마면 금마길(농협사거리~면사무소사거리)과 고도길(금마교~익산교)의 약 760m 구간 내 110여개 업소에 대한 간판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국비 3억5000만원과 지방비 1억5000만원 등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 말부터 작업을 들

어간다.

시는 지역별 업소별 특성을 살리면서 백제왕도 고도 이미지와 조화로운 간판을 디자인해 전면 교체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고도보존지역심의위원회 심의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상가 관계자와 개별 접촉을 통해 개인별 의견을 수렴해 시안을 확정했다.

시는 올해 초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 발주, 입찰을 완료해 시공업체를 결정

했다.

시는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가 기존 간판 철거와 벽면 정비, 신규간판 제작·설치 공사를 진행해 5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선 지중화 사업 마무리와 함께 이번 고도지구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가로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과 함께 쾌적하고 걷기 좋은 특성화된 고도 거리로 만들어 지역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 군산소방서, 산불예방 유관기관과 간담회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21일 의



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산불감시원 등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산불 발생 시 상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10년간 전북 지역 산불은 433건으로 연평균 43건이 발생했으며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절반인 50%(215건)가 봄철에 집중 발생했고, 69%(270건)이 소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산불화재 통계자료 확인과 함께 산불예방 홍보 및 방법을 협의하고 재난 발생 시 단계별 역할분담 사항과 상호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 해수청, 490억 투입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전북 군산항 유류지에 해경 함정 및 군산대학교 실습선 등의 접안을 위한 ‘군산항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공사’를 착공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 4~6부두 사이에 대형 해경 함정 전용 계류 시설이 없어, 컨테이너부두에 임시계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운영 효율 저하 등으로 전용부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2021년 8월까지 490억원을 투

입해 3000급 2척을 포함한 16척의 해경 함정과 군산대학교 3000급 실습선 1척이 동시 접안 가능한 다목적 관리부두를 건설하기로 했다.

홍상표 군산해수청장은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 추진으로 해경 함정 운영 효율 제고 및 사고 대응 시간 축소와 동시에 항만운영의 효율성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군산항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